미국의 진면모 4

강대성의 신화는 깨여졌다

강대성의 신화는 깨여졌다

조선 · 평양
외국문출판사
주체105(2016)년

차　례

내리막길의 시초-조선전쟁

《강대성》을 떠들며 세상에 나쁜짓이란 나쁜짓은 도맡아 골라하면서도 실패와 좌절을 모른다던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 미제가 20세기 50년대에 조선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가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게 되였다.

40여년동안이나 포악한 일제의 식민지로 있다가 갓 해방된 조선에서 미제가 난생 처음으로 드센 타격을 받고 허리가 꺾이울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하였겠는가.

실로 조선전쟁은 침략과 략탈을 일삼으면서 불을 즐기고 피를 즐기며 전쟁을 즐겨오던 미제에게 처음으로 내리막길, 멸망의 길을 열어준 특기할 사변이였다.

미제가 그토록 품을 들이고 면밀히 준비한 조선전쟁은 첫시작부터 놈들에게 악몽만을 가져다주었다.

미제의 사촉을 받은 남조선괴뢰들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여러 방향에서 불의의 공격을 개시하여 38° 선이북지역으로 1～2㎞나 쳐들어왔다.

공격을 개시하면서 놈들은 《아침은 해주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게

될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리승만괴뢰군이 38° 선전역에서 북침공격을 감행하자 서울주재 미국대사였던 무쵸는 기다렸다는듯이 본국에 전보문을 날리였으며 전보문을 받은 미국무장관 애치슨은 차관보 러스크와 함께 《북조선군대가 오늘 새벽에 여러 지점들에서 한국을 침략하였다.》는 전보문을 유엔주재 미국대표에게 보내여 유엔에 제소할것을 지시하였다.

저들의 각본에 따라 긴급소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미제는 쏘련대표가 결석한 기회를 리용하여 거수기를 발동하여 유엔 각 회원국은 무장공격을 격퇴하고 이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해 남조선에 필요한 원조를 제공할것이라는 《결의》를 억지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되여 미제는 유엔의 간판밑에 15개의 추종국가군대들을 망라한 미군주도하의 《유엔군》을 조선전쟁에 끌어들이게 되였다.

적들의 불의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적들에게 모험적인 전쟁책동을 즉시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만일 이 무모한 침공을 즉시 중지하지 않는다면 공화국정부와 군대와 인민은 결정적인 대책을 취하게 될것이며 동시에 이 모험적인 전쟁행위로 하여 발생되는

모든 후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적들이 지게 되리라는것을 엄중히 경고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전쟁의 불길을 더욱 확대하는 길로 나갔다. 적들의 무력침공으로 말미암아 조선인민앞에는 커다란 위협이 닥쳐왔다.

그러나 놈들을 맞받아나선 조선인민은 망국노의 멍에를 쓰고 시들어가던 어제날의 식민지노예가 결코 아니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나라의 주인으로 자라난 조선인민은 해방후 비록 5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자신들이 지닌 력사적사명을 심장으로 깨달은 인민이였다.

미제는 위대한 수령을 모신 인민이 얼마나 강의한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얼마나 거대한 힘을 발휘할수 있는가를 미처 알지 못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비상회의에서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경비대에 적들의 무력침공을 저지시키고 즉시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갈것을 명령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명령을 받아안은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용사들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으며 원쑤들을 무찌르며 반공격으로 넘어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전략전술적지휘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서울해방작전, 대전해방작전, 안동해방전투, 락동강도하전투, 주문진해전을 비롯한 수많은 작전들과 전투들에서 미제침략군과 리승만괴뢰군에게 섬멸적타격을 가하였으며 전쟁개시후 한달남짓한 기간에 남반부령토의 90%이상과 인구의 92%이상을 해방하는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다.

이 기간 영웅적인민군장병들은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적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패배를 안기였으며 소위 《패전을 모르는 상승사단》이라고 호언장담하던 미제침략군 24보병사단을 비롯하여 괴뢰군 2, 5, 7보병사단을 완전히 소탕하고 미제침략군 1기병사단과 25보병사단, 괴뢰군 1, 3, 6, 8보병사단 및 수도사단에 심대한 손실을 주었다.

우리의 용감무쌍한 비행사들과 해병들은 미제침략군 극동공군과 극동함대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군사정치적패배를 당하고 조선땅에서 완전히 쫓겨날 위험에 직면한 미제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기어이 실현해

보려고 최후발악을 다하였다. 미제는 태평양방면에 배치하였던 륙해공군을 총동원하고 지중해함대의 일부와 예비로 두었던 군함들 그리고 15개 추종국가군대들을 조선전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변화된 군사정치정세에 대처하여 일시적인 전략적후퇴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새로운 반공격에로 넘어간 인민군부대들은 미제침략군 1, 9, 10 군단과 괴뢰군 1, 2, 3 군단 부대들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특히 미제침략군 1기병사단, 1해병사단, 2, 3, 7, 24, 25보병사단, 영국침략군 27, 29려단, 뛰르끼예려단, 괴뢰군 수도사단, 1, 2, 3, 5, 6, 7, 8, 9보병사단들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적들을 38° 선이남으로 구축하였다.

인민군부대들은 그후 1951년 하기방어작전, 1951년 추기방어작전, 1211고지방위전투, 351고지전투를 비롯하여 여러차례의 방어작전과 전투들을 진행하여 미제가 정전담판의 막뒤에서 감행한 《하기공세》, 《추기공세》, 《김화공세》, 《교살작전》, 《초토화작전》, 《신공세》, 세균전만행 등 온갖 모험적인 공세와 침략기도들을 짓부시고 적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패배를 안기였다.

미제는 그 무슨 《영예로운 정전》의 목적을

달성해보려고 수많은 군사비와 군수물자를 탕진하면서 세계전쟁사에서 일찌기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수적인 전쟁수단과 방법을 다 썼으나 날이 갈수록 더더욱 돌이킬수 없는 군사, 정치, 도덕적패배를 당하였다.

마침내 미제는 조선인민과 인민군대의 위력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1953년 7월 27일 10시 판문점에서는 력사적인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되였다.

조선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코대를 꺾어놓고 그 《강대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렸으며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다.

《유엔군》총사령관 클라크는 《…나는 력사상 승리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군사령관》이라는 영예롭지 못한 이름을 띠게 되였다고 통탄하면서 《본관은 이 시간에 있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적(인민군대를 말함)이 패배당하지 않은채로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있다는 의미에서 패배를 한셈이다.》라고 실토하였다.

미국의 출판물들까지도 《그것은 미국이 겪은

패배가운데서도 최악의 패배였다.》고 아우성을 쳤다.

미합동참모본부 의장 브레들리는 《잘못고른 시간에 잘못고른 장소에서 잘못고른 적에 대한 잘못한 전쟁》이였다고 자백하였는가 하면 전 미 국방장관 마샬은 《신화는 깨여지고말았다. 우리는 남들이 생각하던것처럼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였다.》라고 실토하였다.

이것은 망해가는 저들의 처지에 대한 미제의 절망감의 반영이기도 하였다.

미제는 수적, 기술적우세를 떠벌이면서 조선전선의 좁은 지역에 자기 나라 륙군의 3분의 1과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과 지중해함대의 일부 그리고 15개의 추종국가군대들과 남조선괴뢰군 및 일본군국주의자들을 포함하여 무려 200여만명의 대병력과 막대한 량의 전투기술기재들을 동원하였다.

미제가 조선전선에 투입한 군수물자만 하더라도 태평양전쟁에서 소모한 군수물자의 11배나 되는 무려 7 300만t에 달하였다. 미제는 세균무기와 화학무기까지 사용하면서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전쟁방법과 수단들을 다 동원하였다.

그러나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조선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미제침략군 40만 5 498명을 포함한 156만 7 128명의 적을 살상포로하고 1만 2 224대의 비행기와 564척의 각종 함선, 3 255대의 땅크 및 장갑차, 1만 3 350여대의 자동차, 7 695문의 각종 포를 비롯하여 막대한 전투기술기재와 군수물자들을 파괴로획하였다.

이것은 미제침략자들이 태평양전쟁 4년간에 입은 손실의 근 2.3배에 달하는것이며 100여년의 피묻은 해외침략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수치스러운 대참패였다.

조선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우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세계력사에서 처음으로 미제국주의침략자를 타승한 영웅적인민으로 되였다.

이로써 《강대성》을 떠들던 《대아메리카제국》의 앞날에 망조가 들기 시작하였다.

력사의 고발

《앙클 쌤》과 《양키》

세상사람들은 미국인들을 가리켜 《앙클 쌤》(쌤아저씨) 또는 《양키》라고 부르고있다.

《앙클 쌤》과 《양키》는 미국을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앙클 쌤》을 두고 말하면 키가 크고 긴 회색머리칼에 별들이 새겨진 조끼와 줄무늬바지를 입고 띠에 별들을 새긴 중절모를 쓴 인물 다시 말하여 미국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력사가들은《앙클 쌤》이라는 말이 미국과 영국사이에 진행된 전쟁시기부터 널리 통용되였으며 그 력사적인 인물이 쌔무얼 윌슨이라는 사나이라고 전하고있다.

매써츄쎄트에서 출생한 쌔무얼 윌슨은 14살때인 1766년에 집을 뛰쳐나와 자원병으로 군대에 입대하였으며 독립전쟁에서 영국인들을 타승할 때까지 싸웠다고 한다.

윌슨은 23살에 돈한푼 없이 뉴욕주 트로이시로 가서 고기를 포장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는 자기의 성실한 노력으로 트로이주민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솔직하고 령리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전쟁전까지 쌔무얼 윌슨은 뉴욕주에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였으며 마침내 뉴욕주와 뉴저지주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에 공급하는 식료품들을 감독하는 총감독으로 되였다.

그때부터 윌슨은 자기자신을 믿고 자기나라에 충실한 량심의 체현자로 인정되였으며 전쟁말에 《앙클 쌤》이라는 별명은 민족적성격과 정부를 상징하는 말로 되였다.

1816년 미국회는 뉴욕주 트로이의 쌤 윌슨아저씨가 미국의 상징으로 되였다는 결정까지 채택하였다.

《앙클 쌤》과 함께 미국의 상징으로 통용되는 다른 하나의 말은 《양키》이다.

《양키》(yankee)는 미국남북전쟁시기에 남부군인들이 북부의 군인들을 가리켜 부른 별명이다. 당시 북부의 군인들은 남부군인들을 《반역자》(베벨)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반발하여 남부의 군인들은 북부의 군인들을 《양키》라는 별명을 붙여 불렀다.

《양키》라는 말은 네데를란드사람들속에서 흔한 이름인 얀 코니스(Yan cornis)의 애칭형이다. 따라서 양키라는 말에는 북부의 군인들을 얕잡아 멸시하는 뜻이 담겨져있다.

《양키》라는 말은 미국인들 자신이 처음에

뉴잉글랜드사람이라는 뜻으로 썼지만 영국인들과 기타 외국사람들은 보통 미국사람이라는 뜻으로 쓰고있다.

《양키》라는 말에서부터 미국독립전쟁때 미국인들이 애창했다는 국민가요 《양키 두들》도 나왔고 《양키식》, 《양키화》, 《양키풍》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였다.

오늘도 미국의 거리들에서는 청소년들이 행진할 때 《양키 두들》을 민요행진곡처럼 부르기도 하고 미제의 침략과 략탈정책을 전파하는 《미국의 소리》방송에서도 그 노래를 자랑스럽게 내보내고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 세상사람들에게 있어서 전형적인 미국인들을 뜻하던 《앙클 쌤》과 《양키》의 의미는 미제를 저주하는 대명사로 되였다.

《앙클 쌤》이 처음엔 미국의 나이지숙한 아저씨 또는 전당포주인이라는 뜻으로 불리우다가 지금에 와서는 마약장사군, 경찰수사관으로도 불리우고있다.

또한 《양키》라는 말도 단순한 경멸의 뜻을 초월하여 이제와서는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저주와 증오의 대명사로 되였다.

웰남의 쟝글속에서

웰남은 1950년대 당시 세계최대의 천연고무생산국이였으며 더우기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쌀생산국이였다.

미제가 웰남에 눈독을 들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지역을 장차 일본과 필리핀을 방위하는 저들의 방위계선으로 꾸리려는데 있었다.

더우기 웰남독립운동의 지도자인 호지명은 공산주의자였던것이다. 그런데로부터 미제는 좋기는 저들이 직접 웰남을 타고앉았으면 하였으나 조선전쟁에서 만신창이 되도록 얻어맞고있는 형편에서 그럴 용기는 좀처럼 나지 않았다.

허나 미제는 웰남의 독립을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았으며 그런데로부터 웰남에서의 식민지제도를 유지하려는 프랑스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1954년 당시 미국은 프랑스에 20억US$이상의 군사원조를 제공하였으며 프랑스가 치르어야 하는 전쟁비용의 4분의 3을 저들이 직접 부담해주고있었다.

웰남인민은 미제야말로 가증스러운 프랑스제국주의를 도와주는 극악한 원쑤라는것을 잘 알게 되였다.

웰남인민군은 1950년 9월부터 전면적인 반공격에로 넘어가 1953년 12월에는 프랑스강점군의 전략적지점인 디엔비엔요새를 완전히 포위하고 치렬한 전투끝에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반프랑스항전을 승리로 결속지었다.

1954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진행된 외무상회의에서는 웰남, 라오스, 캄보쟈에서 평화를 회복할데 대한 협정이 조인되였으며 이리하여 프랑스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민족해방전쟁은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미제와 남부웰남괴뢰들은 이 협정을 인정하는것을 거절하면서 그 리행을 태공하였다.

제네바협상이 있은지 얼마 안있어 미중앙정보국의 작전조들이 웰남에 파견되여 17° 선이북에 대한 특공대작전을 포함한 비밀작전들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954년 가을 미제는 프랑스, 영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타이, 파키스탄을 망라한 동남아시아조약기구(쎄아토)를 조작하였는데 그 기본목적의 하나는 바로 남부웰남을 방위하는것이였다.

미제는 1955년부터 제네바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사이공괴뢰《정권》에 직접적인 군사원조를 주고 군사고문들과 전문가들을 파견하였으며 남부웰남에 군사기지를 만들어놓고 남부웰남

괴뢰군을 현대적인 군사장비들로 무장시켰다.

미제는 또한 1955년 10월에 남부웰남에서 국민투표를 벌려놓고 친프랑스괴뢰인 바오다이대신 친미주구 느고 딘 디엠을 《국가수반》직에 올려놓았다.

1956년 3월에는 북부웰남측이 제네바협정에서 규정한대로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자고 제기하자 미국의 아이젠하워행정부와 느고 딘 디엠괴뢰도당은 선거가 실시되면 호지명이 이끄는 북부웰남이 이길것은 불보듯 명백하다는데로부터 그 제의를 거절하였다.

놈들은 남부웰남에서 단독선거를 진행하여 미제의 식민지통치기구인 《웰남공화국》을 조작하였다. 이리하여 웰남은 남북으로 분렬되고 남부웰남은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1955년부터 1961년사이의 기간에 느고 딘 디엠《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도합 10억US$분의 원조를 받았는데 그 대부분은 군사원조였다.

미국의 군사고문들이 남부웰남괴뢰군의 훈련지도를 맡아해주었으며 미국의 미쉬건주립대학의 경찰전문가들이 남부웰남민병대 병사들에게 훈련을 주었다.

느고 딘 디엠의 사이공괴뢰《정부》는 미국에 철저히 의존하였으며 더더욱 독재통치에로 나가면

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생활을 갈망하는 남부웰남인민들의 투쟁을 악랄하게 탄압해나섰다.

공산주의자이든 아니든 남부웰남사람들 누구나가 다같이 미제의 식민지지배책동과 느고 딘 디엠괴뢰도당의 부패하고 억압적인 《정권》을 반대하는 봉기를 다짐하였다.

1960년 남부웰남의 혁명가들은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을 결성하였으며 그 기치아래 남부웰남의 애국세력들이 규합되였다.

한편 꾸바에서의 쁠라야 히론전투와 도이췰란드에서의 베를린장벽사건에서 받은 된타격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던 미국대통령 케네디는 웰남에서는 강경자세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미국이 아시아에서까지 물러서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하고있었으며 남부웰남에 미군무력을 증파하였다.

1963년말에 이르러 《비프－업》계획에 따라 1만 6 000명이상의 미군고문들이 웰남에 파견되였으며 식민지지배를 위한 막대한 자금이 남부웰남에 투하되였다.

그러나 인민들의 반항기세는 더욱 높아만 갔다. 이렇게 되자 미제는 《전략촌계획》을 추진시켰다. 베트콩세력과 농민들간의 련계를 차단시킬 목적으로부터 농민들을 이주시켜 철조망을 둘러

친 집결구역들에로 몰아넣기로 한 이 계획은 농민들의 대중적인 분노만을 더욱 야기시켰다.

잘못 고른 괴뢰의 만용때문에 웰남에서 실패할수 있다고 판단한 미중앙정보국은 1963년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다.

거의나 공개적으로 제공된 미국대사 헨리 캐보트 로쥐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느고 딘 디엠《정권》을 전복하고 남부웰남에 괴뢰군사독재를 수립한 미제는 군사적간섭의 도수를 더욱 높이면서 1964년 중엽에 이르러 웰남에 주둔한 저들의 군사인원과 남부웰남괴뢰군을 대폭 늘이였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전쟁》은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의 지도밑에 남부웰남애국자들은 해방지구를 확대하면서 령토의 4분의 3(주로 농촌지역)을 해방하였다.

미제는 사이공괴뢰《정권》을 유지하며 남부웰남에 대한 식민지적예속을 보존하기 위한 출로를 북부웰남에로 전쟁을 확대하는 길에서 찾았다.

1964년 8월 바크보만사건을 조작한 미제는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1964년 8월초 미제의 함대와 비행기들은 선전포고없이 웰남민주공화국의 일련의 군사대상들과

주민거점을 포격 및 폭격하고 1965년 2월에는 17° 선지역의 동허이를 비롯한 주민거점들을 포격 및 폭격하였으며 4월에는 웰남민주공화국 남부지역에 대한 포격과 폭격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웰남로동당의 호소에 따라 수십만명의 청장년들이 군대와 의용군에 입대하였으며 경제가 전시체제로 개편되였다. 웰남민주공화국은 1965년 한해동안에만도 미제의 비행기 800대를 격추하였다.

한편 1964년 가을-1965년 봄 사이공괴뢰군의 련속적인 패배에 당황한 미제는 1965년 3월 8일 다낭항에 미해군륙전대를 상륙시키고 4월에는 미륙군사령부를 설치하여 저들의 침략무력에 의한 직접적인 무력간섭에 나섰으며 이로써 웰남전쟁의 《미국화》가 막을 올리게 되였다.

군사행동을 강화하면서 미제는 어리석게도 웰남인민들의 투쟁기세가 약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반제민족해방운동에 떨쳐나선 웰남인민들의 투쟁기세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으며 웰남민주공화국은 더 많은 무기와 인원들을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에 보내주었다.

절망에 빠진 미국대통령 죤슨은 《나는 꼭 내가 화물자동차적재함에 올라앉아 텍사스의 고속도로를 따라가다가 우박폭풍을 만난 행인이 된

심정이다. 뛸수도 없고 몸을 숨길데도 없으며 그렇다고 얻어탄 차를 멈춰세울수도 없다.》라고 궁지에 빠진 저들의 처지를 고백하였다.

미제는 웰남이 세계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를 반대하여 그렇게 완강하게 싸운다는데 대하여 도저히 믿을수 없어하면서 언제인가는 반드시 붕괴점에 이르게 될것이라고 믿고있었다.

악몽속에 헤매이던 죤슨은 어리석게도《호지명이 바라는것이 과연 무엇일가?》라고 하면서 마치도 그가 매수될수 있는 미국의 부패한 정치가나 같은 인물이 아닐가 하고 점쳐보기까지 하였다.

당시 국무성 부장관이였던 죠지 볼은 《범의 잔등우에 올라타게 되면 어디에서 내릴지 갈피를 잡기 힘들게 된다.》고 하면서 웰남전쟁의 확대는 미친짓이라고 들고나왔다. 후날 죠지 볼은 웰남전쟁을 확대한 죤슨의 결심은 《미국이 자기의 전력사적과정에서 범한 최대의 오유》로 된다고 말하였다.

어느 한 전쟁모의장에서 한 함대사령관이 만일 미국이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비틀거리고있는 남부웰남동료들을 도와나서지 않는다면 세계는 미국의 말을 믿지 않을것이라고 한데다가 국방장관까지 미국은 남부웰남을 도와주어야 할 책임을 지고있다고 하자 죤슨은 《그러나 만일

그 책임이 당신이 얼마나 높은가를 잘 아는 건물꼭대기에서 내려뛰는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당신은 그 책임을 벗어던지고싶어질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죤슨에게는 다른 출로가 있을수 없었다.

미제는 1965년에 저들의 침략군을 대폭 증강하는 한편 남조선, 대만,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의 무력까지 웰남전쟁에 끌어들였다. 미제는 유독성물질과 독가스를 살포하고 해방지역의 산림을 불태우며 파종한 땅을 파괴하는 등 온갖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미군의 수색소탕작전들은 그 성과가 매우 적었다.

그러한 작전들은 전쟁승리에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은밀한 방법으로 유격대에 지원을 제공해주는 농민들의 수만 더 불구어줄뿐이였다. 미국의 한 관리는 후날 《우리는 마치도 불도젤과 마사진 기중기만 가지고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 같았다.》라고 하였다.

남부웰남애국력량은 적의 공격을 격퇴하였을뿐아니라 해방지역을 확대하였으며 적들로 하여금 1965년 10～12월부터는 방어에로 이전하게 하였다.

1966년말에 이르러 미제침략군은 38만명으로

늘어났으며 1967년에 들어와서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폭격은 한층 더 강화하였다.

남부웰남의 미제침략군은 점차 47만 5 000명으로 증강되였으며 그외에 11개 사단의 사이공괴뢰군, 2개 사단과 1개 려단의 남조선괴뢰군,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타이 및 필리핀군대가 웰남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가담하였다. 이 군대의 총수는 1967년말에 무려 130만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은 1968년 1월 꾸에썬미군기지에 대한 공격을 신호로 넓은 전선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사이공은 실제상 애국력량에 의하여 포위되여있었다.

미제공중비적들은 전쟁시작부터 1968년말까지 웰남민주공화국과 남부웰남 및 라오스의 해방력량이 있는 지역에 90만번이상 출격하고 약 230만t의 폭탄을 투하하였으며 남부웰남에서 500회이상의 토벌작전을 벌려놓았다.

1968년말에 이르러 웰남애국력량을 반대하는데 총 140만명의 병력이 투입되였는데 그중 미제침략군수는 약 60만명에 달하였다.

미제는 웰남전쟁 첫 시기에 대규모공격작전으로 애국력량을 말살하려고 하였으나 패배를 거듭하자 1968년초부터 방어에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한편 미국내의 많은 사람들은 무모한 적자예산지출, 특히는 웰남전쟁을 유지하고 그외의 국제적문제들에 대한 간섭 등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지출로 하여 미국이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금융위기에 말려들고있다는것을 알아차리게 되였으며 종당에는 미국경제가 완전한 파탄에 이르게 될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였다.

죤슨은 아무리 많은 병사들과 무기들을 동원시킨다고 하여도 이 전쟁에서 이길 전망은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하게 되였다.

3월 31일 TV연단에 출연한 그는 드디여 대부분의 북부웰남지역에 대한 공습을 중지할것이라고 선포하면서 하노이가 협상에 나올것을 요구하였으며 얼마후에는 다음기 대통령선거출마를 포기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사람들을 놀래웠다.

죤슨은 기자들에게 《케네디의 죽음과 나의 죽음간의 유일한 차이는 나는 살아있다는것, 그리고 나의 죽음은 그의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는것이다.》라고 하였다.

그후 대통령으로 당선된 닉슨은 전쟁처리문제를 토론하기 위하여 선임자인 죤슨과 그의 측근들과 마주앉았다. 닉슨은 후날 이렇게 말하였다.

《장구한 전쟁으로 인한 신고가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얼굴에 력력히 남아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건의할 그 어떤 새로운 안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나는 그들이 패배로 인한 실망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안고있던 어려운 문제거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였다는데로부터 오는 안도감을 느끼고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1964년 8월 5일부터 1968년 10월 31일까지 격추된 미제비행기는 3 243대에 달하였다.

전장들에서의 련이은 패배, 세계사회계의 압력으로 미제는 1968년 3월 31일부터 웰남민주공화국에 대한 폭격을 제한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11월부터 북부웰남을 반대하는 폭격과 기타 군사행동을 무조건 완전히 중지한다고 발표하였다.

1969년 하반년도부터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은 남부웰남의 전 령토에서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미제침략자들과 사이공괴뢰군에 더욱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사회주의나라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웰남인민의 정의의 반미구국항전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싸우는 웰남인민들에게 물심량면으로 힘있는 지지성원을 보냈다.

전쟁이 종결될 가망이 점점 더 희박해지게 되자 더욱더 많은 미군병사들이 과연 미국이 웰남에 있어야 할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의심을 더욱 크게 가지게 되였다.

군기는 문란해지고 군률은 타락정도에 이르렀다.

미국내에서는 수천명의 청년들이 징집을 거부하는것으로 자기들의 반전립장을 시위하였다.

웰남전쟁 전기간 5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징집령위반죄를 범하였으며 그중 25만명은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지어 수천명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징집령장들을 불태워버리기까지 하였다.

곤경에 빠진 미제는 웰남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는 이른바 전쟁의 《웰남화》정책에 매달렸으나 패배의 운명을 면할수 없었다.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빠진 미제는 1973년 1월 27일 정화협정에 조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리하여 미제침략군과 그 추종국가군대들은 웰남에서 쫓겨났다.

남부웰남인민해방무장력은 1975년 3월초 괴뢰도당에 대한 총공세를 들이댔으며 이에 호응하여 남부웰남의 여러 도시들에서 인민폭동이 일어났다.

남부웰남인민과 무장력은 4월 30일 괴뢰수도 사이공을 해방하고 남부웰남 전역을 완전히 해방하였다.

1976년 4월 25일 남북총선거가 진행되였으며 7월 2일에는 웰남사회주의공화국이 선포되였다.

미제가 치른 웰남전쟁의 대가는 막대한것이였다.

미제는 5만 8 000명의 사망자와 수만명의 부상자를 냈으며 막대한 자금이 하늘로 날아났다.

전쟁비용으로 도합 1 700억US＄이상의 자금이 지출되였으며 수십억US$가 전쟁참가자들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불되게 되였다.

웰남전쟁으로 하여 세계《최강국》이라고 떠들던 미제의 정치경제적 및 군사적지위는 더욱 땅바닥에 떨어졌으며 딸라를 기축단위로 하던 자본주의금융체계는 악몽에 시달리게 되였다.

어느 한 미국대사는 저들이 당한 패배에 대하여 《어떻게 되여 그렇게 많은것을 가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적은 적들을 반대하는 그렇듯 장구한 기간에 그렇게 적은것을 얻게 되였는가?》라고 개탄하였다.

남부웰남주둔 미군사령관 막스웰 테일러는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동맹자들에 대하여 잘 몰랐다. 둘째로 우리는 적들에 대하여 그보다 더 몰랐다. 셋째로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오로서 우리는 우리자신에 대하여서는 그보다도 더 몰랐다.》라고 쓰라린 고뇌를 하소연하였다.

조선전쟁을 통하여 내리막길에 들어선 미제는 웰남전쟁에서의 수치스러운 패배로 《강대성》의 허위성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여지없이 드러내게 되였다.

바크보만사건

남부웰남에서 저들의 식민지지배책동이 총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미제는 전쟁의 불길을 웰남민주공화국에로 확대하는데서 출로를 찾았다.

미제침략자들은 미리 짜놓은 계획에 따라 1964년 8월 4일 수십대의 비행기와 구축함 《매독스》호를 웰남민주공화국의 령해인 바크보만에 침입시켜 북부웰남의 연해지역에 함포사격과 기관총사격을 가하는 도발행동을 감행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웰남인민군 해군의 순찰정들이 반격을 가하였다.

미제는 이틀후 《매독스》호를 다른 구축함 한척과 함께 북부웰남해안가에로 출동시켰다.

당시 일기조건은 매우 불리하였는데 《매독스》호의 음파탐지수들이 적어뢰정들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자 두척의 함선들은 목표물들이 있다고 가정되는 지점에 맹사격을 가하였다.

그때까지도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있던 《매독스》호 함장이 무슨 일인가고 부하들에게 묻자 구축함에 타고있던자들은 아무런 말도 하

지 못하고있다가 사실 적합정들을 보거나 그 비슷한 기관소리도 들은것은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미제우두머리들은 이 사건이야말로 전쟁확대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그 무슨 《북부웰남의 공격》을 떠들어대면서 미제는 8월 5일부터 웰남민주공화국의 령토들을 공공연히 폭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후 하노이와 하이퐁일대에까지 폭격범위를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미제의 북부웰남에 대한 무력침공은 웰남민주공화국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엄중한 침략행위인 동시에 동남아시아와 극동 및 기타 지역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위험한 불장난이였다.

교활한 미제는 8월 5일 바크보만에서의 이른바 《사건》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제소하는 광대놀음을 벌려놓음으로써 저들의 침략행위를 가리우고 합법화하려고 어리석게 책동하였다.

그러나 웰남민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의 무모한 군사적도발은 웰남인민을 비롯한 아시아와 세계진보적인민들의 견결한 항의와 규탄을 받고 그 범죄적진상이 날날이 드러나게 되였다.

8월 6일 웰남민주공화국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의 침략적군사도발행위를 세상에 고발하였다.

깨여진 케네디의 꿈

1960년 대통령선거경쟁에 민주당후보로 나선 죤 에프. 케네디는 아이젠하워행정부가 랭전에서 미국을 패배에로 끌고가고있다고 비판하면서 랭전을 더욱 적극적이며 활력있게 추진함으로써 기어이 공산주의를 타승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1961년 1월 케네디는 대통령취임연설에서 《모든 국가들이 우리가 자유와 생존과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어떤 대가도 감당하고 그 어떤 부담도 걸머지며 그 어떤 고난과도 맞서며 그 어떠한 친우도 지지하며 그 어떠한 원쑤도 반대할것이라는것을 알게 하자!》라고 피대를 돋구었다.

그러면서 그는 관용정책으로 하여 미국이 입은 피해와 봉쇄정책으로 미국이 거둔 성과들에 대하여 자주 입에 올리군 하였다.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으면서 그는 자기의 행정부를 전쟁열에 들뜬 호전분자들로 꾸리였다.

케네디는 쏘련과의 첫 회담을 준비하면서 대화를 나눈다기보다는 승패를 다투려는 야망을 강하게 발로시키면서 《그에게 우리도 그만 못지않게 굳세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나는 그와 마주앉으면 자기가 과연 누구와 맞서고있는가를

그가 알게 하려 한다.》고 떠벌였다.

케네디는 미국은 게릴라전으로부터 시작하여 핵전쟁에 이르는 온갖 형태의 전쟁방식들에서 다같이 승리를 담보할수 있는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고 제창해나섰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61년 국방비를 15%나 늘였으며 대륙간탄도미싸일보유수도 대폭 늘였을뿐아니라 사회주의나라들만이 아니라 새로 독립한 나라들에서의 혁명운동들까지도 자기의 투쟁대상, 봉쇄대상으로 삼았다.

전쟁열에 미친 케네디행정부는 지어 국민들에게 정원뒤뜰에도 원자탄방공호를 건설하라고까지 요구하였다.

1961년에 쏘련이 도이췰란드의 서부베를린에 대한 서방의 점령상태를 끝장내기 위한 협상을 제기하자 케네디는 베를린은 《서방의 용기와 의지를 시험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그 제의를 거부하였으며 국회에 32억US$의 국방비추가예산안을 제기하고 예비역동원권을 자기에게 줄것을 요구하였다.

꾸바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은 케네디의 랭전정책에서 가장 중심적인것들중의 하나였다.

1959년초 피델 까스뜨로의 봉기군은 북아메리카의 투자가들과 미국군사고문들 그리고 미국

관광객들을 언제나 환영해오던 오랜 미국의 괴뢰이며 극악한 독재자 바띠스따정권을 전복하고 꾸바땅에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꾸바인민은 오래전부터 감행되여온 미제의 지배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을 가지고 미국의 경제적지배를 끝장냄으로써 미제의 억압과 략탈에 종지부를 찍는것을 꾸바혁명의 기본구호로 내세웠다.

날을 따라 더욱 강경해지는 까스뜨로의 립장은 꾸바에 근 10억US＄분의 자본을 투자하고 당시 꾸바의 거의 전체 무역을 지배하고있던 미제를 당혹케 하였다.

이로부터 아이젠하워는 날을 따라 더욱 강경해지는 까스뜨로정권을 전복하기 위하여 미국이 꾸바로부터의 사탕수입량을 대폭 줄이도록 하는 한편 꾸바에서 망명한 반역자들로 꾸바에 대한 진공부대를 조직할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까스뜨로는 꾸바에 있는 모든 미국회사들을 국유화하는것으로 대응해나섰고 자기 나라 혁명을 말살하려는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여 쏘련과 동맹을 맺게 되였다.

꾸바혁명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던 미제는 그를 요람기에 말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대통령임기를 마치면서 백악관을 떠나기 앞서

아이젠하워는 꾸바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였으며 꾸바침공작전을 계속 추진시킬것을 대통령당선자인 케네디에게 건의하였다.

그리하여 케네디의 책상우에 미중앙정보국의 꾸바침공작전씨나리오가 오르게 되였다.

미중앙정보국이 작성한 침공작전씨나리오는 다음과 같았다.

꾸바망명자부대는 쁠라야 히론에 상륙한 후 교두보를 구축한다. 그러면 꾸바인민은 까스뜨로를 반대하는 봉기에 궐기할것이며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새 정부를 환영해나설것이다.

만족감을 가지고 이 작전을 승인한 케네디는 1961년 1월 7일 까리브해에서의 군사연습이라는 구실밑에 150척의 함선과 4만여명의 병력을 전투준비태세에 들어가게 하였으며 관따나모미해군기지에서 도발책동을 강화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꾸바의 여러 주들에서도 반혁명도당의 준동이 적극화되였다.

4월 15일 꾸바공군표식을 한 미제공중비적들이 싼띠아고 데 꾸바를 비롯한 여러곳의 비행장들을 폭격하는 만행을 감행하기 시작하자 다음날 피델 까스뜨로는 온 나라에 전투동원태세에 들어갈것을 명령하였다.

1961년 4월 17일 미중앙정보국의 훈련을 받은

약 1 500명의 꾸바반혁명고용병들이 미국제무기들로 장비하고 미국군함들의 호위를 받으며 쁠라야 히론과 쁠라야 라르가지역에 상륙하였다.

이 침공작전을 꾸바인들자신의 소행으로 위장하려는데로부터 케네디는 상륙부대에 단 한명의 미국인도 가담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지만 맨처음으로 꾸바해변가에 발을 내짚은것은 다름아닌 미중앙정보국 요원이였다.

미제고용병들은 꾸바국내의 반혁명집단에 의거하면서 씨에나가 데 싸빠따지역을 탈취하며 강점지역에 림시정부를 세우고 미제의 공개적인 무력간섭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려고 획책하였다.

꾸바혁명군과 민병들, 전체 꾸바인민은 《조국이냐, 죽음이냐, 우리는 승리할것이다!》라는 전투적구호밑에 조국과 혁명을 수호하기 위한 결사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3일간의 전투끝에 4월 19일 꾸바인민은 반혁명도당을 완전히 격멸소탕하였다.

이 전투에서 꾸바는 적비행기 9대를 격추하고 미제고용병 약 1 200명을 포로하였으며 《셔먼》호 중땅크를 포함한 많은 미국제무장장비를 로획하였다.

미제와 반혁명분자들은 꾸바땅에 침략의 발을 들여놓은지 불과 72시간만에 섬멸적패배를 당하

였으며 결국 꾸바혁명을 교살하려던 미제의 흉계는 수치스러운 파탄을 면치 못하였다.

쁠라야 히론전투에서 꾸바인민은 빛나는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에서 미제에게 군사적참패를 주고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위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케네디는 부아통이 터졌다.

그는 기어이 까스뜨로를 전복시킬것을 결심하였으며 그의 동생이였던 사법장관 로버트 케네디는 《첩보활동, 태업, 그리고 무질서로 이 섬들의 모든것을 뒤흔들어놓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는 미중앙정보국에 시간, 자금, 노력, 인력 등을 아끼지 말것을 지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미중앙정보국은 《망구스작전》을 작성하였다.

미중앙정보국은 꾸바의 무역을 혼란에 빠뜨리고 마이아미를 거점으로 이 나라에 대한 꾸바반혁명악당들의 습격활동들을 극력 지원해주었으며 여러차례 까스뜨로암살을 위해 지어는 마피아를 비롯한 범죄집단들과도 협동하였다.

미국은 또한 꾸바에 대한 경제봉쇄를 강화하고 꾸바를 아메리카국가기구에서 제명시키도록 하였으며 꾸바를 반대하는 여러 군사활동들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꾸바혁명은 더욱 승승장구하였다.

미제는 이 나라에서 승승장구하고있던 사회주의혁명을 말살하고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거세차게 일어나고있던 이 지역인민들의 반제자주화투쟁을 요람기에 교살할 목적으로 보다 호전적이며 로골적인 침략책동을 감행하는 길로 나아갔다.

미제는 1961년 4월 뿔라야 히론전투에서 당한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1962년에 또다시 꾸바를 반대하는 새로운 전쟁도발책동으로서 까리브해위기를 조성하였다.

미제는 까리브해역에서 전쟁발발의 새로운 위험을 조성함으로써 꾸바인민을 굴복시키고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그의 혁명적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이 지역에서 뒤흔들리는 저들의 식민지통치체계를 수습하려 하였으며 나아가서 모든 사회주의나라들에 도전하여나섰던것이다.

1962년 10월 미제의 《U-2》고공정찰비행기가 꾸바상공에서 중거리미싸일발사장을 탐지하였다. 정탐자료는 즉시 케네디에게 보고되였다.

10월 22일 케네디는 TV연설을 통하여 쏘련이 꾸바에서 미싸일을 철수시킬것을 요구하였으며 꾸바에 대한 전면적인 해상봉쇄를 명령하였다.

케네디는 꾸바인민이 자위를 위한 무력을

강화하고있는것을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걸고들면서 일체 공격용군사장비들이 꾸바로 수송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꾸바로 가는 모든 종류의 선박들을 엄격히 검색할것을 명령하였다.

이 명령에 의하여 미제의 5개 사단(후방부대까지 합하여 10만명)의 무력과 183척의 군함(8만 5 000명)이 동원되였으며 1 190대의 비행기가 꾸바를 반대하는 침략행동에 출동할 태세를 갖추었다.

한편 미국방성은 국내외에 있는 전체 미군부대들에 경계태세를 취할것과 미해병대와 해군의 현역복무기간을 1년간 연기할것을 명령하였으며 검색에 응하지 않는 선박들은 모조리 격침시키겠다고 위협하였다.

10월 23일 미제는 유엔의 거수기들을 리용하여 꾸바에 있는 일체 공격용무기들을 즉시 해체하고 철수시킬것과 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유엔조사단을 파견할데 대한 강도적인 결정을 강압통과시켰다.

미제의 이러한 도발책동은 꾸바의 자주권과 독립을 짓밟는 파렴치한 침략행위였으며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며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횡포한 도전이였다.

미제의 반꾸바무력봉쇄와 대규모적침략위협에 대처하여 꾸바인민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꾸바전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였으며 꾸바혁명군부대들과 민병대들은 총동원령에 따라 자기 진지를 차지하였다. 700만 꾸바인민은 피델까스뜨로의 혁명정부주위에 굳게 뭉쳐 손에 총을 들고 조국방위의 결사전에 일떠섰다.

꾸바정부와 인민은 미제야말로 꾸바인민의 악독한 원쑤일뿐아니라 평화와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전세계인민들의 흉악한 원쑤이라고 락인하였으며 놈들의 무력공격을 분쇄하며 자기나라에 대한 그 어떤 조사도 거부하는 단호한 립장을 천명하였다.

꾸바인민의 혁명적립장과 용감한 투쟁은 전세계 광범한 인민들의 일치한 지지를 받았다. 10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꾸바에 대한 미제의 범죄적침략행위를 규탄하고 꾸바인민에 대한 굳은 련대성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오만하게도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꾸바에 있는 로케트기지들을 파괴할것이라고 횡포하게 꾸바를 위협하였다. 꾸바혁명정부는 미제의 이 횡포한 선언과 관련하여 자기 나라 령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기들을 격추시킬것을 군대에 명령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 미제의 군사적압력에 투항하여 그와 무원칙하게 타협한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은 미제의 침략책동을 더욱 조장시켰으며 꾸바인민앞에 난관을 조성하였다.

10월 28일 꾸바에 있는 쏘련의 로케트무기들을 철수할데 대한 결정이 취해진것과 관련하여 꾸바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의 온갖 해상봉쇄를 철회할뿐아니라 꾸바에 대한 모든 경제 및 무역봉쇄조치를 중지하며 자기 나라에 대한 파괴, 암해활동을 중지하고 미군용기와 군함에 의한 꾸바령공과 령해침범을 중지하고 관따나모를 반환할것 등의 5개 조항으로 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꾸바는 전략무기가 철수한다 해도 자기 나라에는 그보다 위력한 《도덕적로케트》가 있다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로케트무기들이 꾸바에서 제거되자 미제는 미국, 아르헨띠나, 도미니까함선들로 해군특별부대를 창설하여 꾸바에 대한 해안봉쇄를 강화하는 한편 폭격기들도 제거할것을 강요하였다.

꾸바정부와 인민은 미제의 계속되는 침략행위를 반대하여 굴함없이 싸웠으며 혁명의 전취물과 조국의 촌토를 끝까지 사수할 혁명적립장을 견결히 견지하였다.

꾸바인민의 용감한 투쟁과 전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에 부닥친 미제국주의자들은 1962년 11월 20일 꾸바에 대한 해상봉쇄를 해제한다는 성명을 내지 않을수 없었다.

케네디를 비롯한 미제호전광들은 마치도 저들이 꾸바사태에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자유세계에 대한 도전을 격퇴한듯이 기고만장해하였다.

그러나 까리브해위기는 미제의 그 무슨 결단성이나 과감성을 시위한것이 아니라 저들의 취약성을 만천하에 드러내보인 졸작에 불과하였다.

사실상 케네디는 서방의 어용나팔수들이 불어대는것처럼 단호한 결단을 내릴줄 아는 인물이 아니였다.

꾸바에 쏘련중거리미싸일기지가 건설되고있다는 통보를 받은 당시 케네디에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방안도 없었으며 그에 어떻게 대처할것인가에 대하여 전전긍긍해하고있었다. 즉시에 소집된 미제우두머리들의 회의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제기되였으나 이렇다할 묘책이 나서지 않았다.

회의에서 항공대로 기습공습을 들이대여 쏘련과 꾸바의 기술자들을 살해하자는 안이 제기되였으나 케네디대통령의 동생으로서 당시 사법장관직을 맡고있던 로버트 케네디가 그 제기를

극력 반대해나섰는데 원인은 그것이 너무도 허황하고 실현불가능하다고 느껴져서였다.

한편 미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군부호전광들은 꾸바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적침공작전을 벌릴것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케네디에게는 그 제의를 받아들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꾸바에서의 전쟁은 단시일내에 끝나지도 않을것이며 더우기 전쟁에서 이길 승산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특히 케네디가 두려워한것은 쏘련이 대응조치로 서부베를린을 공격할수 있으며 지어는 핵타격까지도 불사할수 있다는것이였다.

쏘련문제전문가였던 챨스 볼렌은 쏘련과 직접 협상을 가지자고 제기하였는데 협상에서 쏘련을 압도하겠는가 하는것도 역시 문제였다.

이때 국방장관 맥나마라가 해군을 동원하여 꾸바에 더이상 군수물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공해상에서 전면적인 해상격리봉쇄작전을 벌릴것을 제기하였다.

케네디는 이것이야말로 묘책이라고 선뜻 받아들였다.

전쟁을 벌리자니 무섭고 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자니 제놈들의 허장성세가 만천하에 드러나는것 같아 전전긍긍해하던 케네디는 전쟁과 그리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두가지 행동사이에

있는 제3의 행동인 공해상에서의 봉쇄가 상책이라고 생각하였던것이다.

사실 그때 흐루쑈브를 비롯한 수정주의자들이 미제의 허장성세에 움츠러들지 않고 놈들과 단호하게 맞서나가는 꾸바인민을 비롯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투쟁기세에 호응하였더라면 미제는 저들이 도발한 까리브해위기에서 참혹한 패배를 면치 못하였을것이다.

미제의 취약성은 까리브해위기시에 발로시킨 미숙한 전략적안목에서도 드러났다.

케네디는 까리브해위기후 꾸바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이 좌절될것이라고 오산하였으나 사실상 까리브해위기를 계기로 피델 까스뜨로에 대한 꾸바인민의 신뢰심은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사회주의는 꾸바인민의 심장속에 더더욱 굳건히 뿌리내리게 되였다.

꾸바인민은 추호의 동요없이 피델 까스뜨로의 두리에 굳게 뭉쳐 미제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전취물을 굳건히 고수하였으며 오늘도 꾸바공산당의 령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코를 꿰인 《푸에블로》호

1968년 1월 23일 조선동해에서는 온 세상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정상적인 해상순찰임무를 수행하던 조선인민군 해병들이 원산부근 려도로부터 7.6mile되는 N 39° 17.4′,E 127° 46.9′ 수역까지 침입하여 정탐활동을 감행하던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1 000여t급)와 거기에 탔던 80여명의 미제침략군놈들을 사로잡았던것이다.

《푸에블로》호는 미중앙정보국에서 직접 파견한 무장간첩선으로서 거기에는 상대국의 전파를 잡아 군사기지들의 위치를 알아내는 정탐설비들이 설치되여있었다.

선원들이 가지고있는 지도에는 조선의 군사기지들의 위치가 표시되여있었으며 또 함선위치일일기록부에는 이 간첩선이 벌써 1967년 12월에 상부의 명령을 받고 일본의 사세보항을 떠나 조선령해에 여러차례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하였다는것이 상세히 적혀있었다.

용감한 인민군해병들은 나포한 《푸에블로》호를 원산항으로 끌어왔다.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나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자주권의 행사였으며 극동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응당한 징벌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한 미제는 도적이 매를 드는격으로 《푸에블로》호가 공해상에서 나포되였다느니, 간첩행위를 하지 않았다느니 하는 거짓말을 꾸며대면서 군사적위협으로 조선인민을 굴복시키려고 어리석게 책동하였다.

미제는 연방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군사적보복조치를 취할것을 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조선의 연해에 집결시키고 《원산을 폭격하겠다》느니 《비행장을 하나 폭격하겠다》느니 하면서 위협적으로 나왔다.

사건발생이후 정세는 전쟁접경으로 치달아올랐다.

미제는 《푸에블로》호가 나포되자 어머어마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조선에 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기 시작하였다.

7만t급의 핵추진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와 6만t급의 항공모함 《레이저》호, 3만 3 000t급의 항공모함 《요크타운》호를 비롯한 25척의 순양함, 구축함으로 구성된 대기동함대, 실로 한개 대전을 치르고도 남을 대규모의 해상무력을 동원하고도 성차지 않은듯 미제는 732대의 전투폭격

기와 정찰기, 수송기를 취역시키는데 필요한 예비역군인 1만 4 600여명을 모집하고 13만 3 000여명의 해군예비역군인들의 퇴역을 중지시켰으며 일본기지에 300대이상의 군용기를 집결하고 극동주둔 《B－52》폭격기를 72대로 증강하는것과 함께 오끼나와로부터 전투기 2개 대대와 수많은 해군함정들을 남조선으로 이동전개시켰다.

미제의 지령에 따라 남조선의 호전분자들도 전쟁광증을 일으키면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갔다. 한차례의 대전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무력을 조선반도에 집결한 미제는 어리석게도 《〈푸에블로〉호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다.》고 공화국을 위협해나섰다.

미제의 광란적인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의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였으며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일촉즉발의 사태가 조성되였다.

세계의 이목은 조선에 집중되였다. 제국주의의 허장성세에 겁을 먹은 일부 나라 사람들은 불안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면서 그 무슨 권고요 뭐요 하면서 조선의 신념과 의지를 흔들어보려고 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68년 2월 8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연설에서 놈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

로 대답할것이라는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결의와 혁명적립장을 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단호한 립장과 위력앞에 미제는 드디여 굴복하고 저들의 죄행을 인정하였다.

미제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감행한 정탐적대행위에 대하여 엄숙히 사죄하며 앞으로 다시는 어떠한 함선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해를 침범하지 않도록 할것을 담보한다는 문건에 서명하였다.

1968년 12월 23일 11시 30분에 판문점에서는 교전당시 발악하다가 인민군해병의 총에 맞아 즉사한 《푸에블로》호 선원의 시체를 넣은 관을 인도하며 선원들을 북반부경외로 추방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용감한 인민군해병들에 의하여 나포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는 전리품, 로획품이 되여 오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옆을 흐르는 보통강에 끌려와 침략자의 수치스러운 말로를 보여주고있다.

미제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그후에도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과 《판문점사건》을 비롯한 여러차례의 도발책동을 감행하였으나 그때마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응당한 징벌을 면할수 없었다.

력사의 고발

판문점사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전쟁의 방법으로 출로를 찾으려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다.

미제는 1976년 8월 18일에는 판문점공동경비구역에서 계획적인 충돌사건인 《판문점사건》을 일으켰다.

이날 10시 45분경 미제는 도끼를 가진 14명의 불한당들을 내몰아 쌍방의 합의없이 사소한 문제도 일방적으로 처리할수 없는 판문점공동경비구역안의 나무를 제멋대로 찍는 비법적인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지어 그러한 비법행위를 그만둘것을 요구하는 조선인민군측 경비인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조선인민군측 경비인원들은 적들의 분별없는 도발에 대처하여 부득불 단호한 자위적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조선인민군측 경비인원들은 적들이 던진 도끼를 집어 도로 놈들에게 던지면서 결사적으로 대항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적들은 미리 대기시켜 놓았던 30여명의 불한당들을 더 증강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쌍방사이에는 격투가 벌어져 량쪽에 다 부상자들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미제가 조선에서 불집을 일으키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꾸며낸 도발행위였다.

미국의 포드행정부는 남조선에 있는 모든 침략무력에 전투태세를 갖출데 대한 명령을 내리고 남조선일대에 현대적군사장비들과 병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그 무슨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공화국을 위협하였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적들의 위협공갈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하여 응당한 조치를 취하였다.

인민군장병들과 로농적위대원들,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은 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적들의 침략책동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섰으며 한손에는 총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한편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미제의 무모한 도발책동을 성과적으로 저지시키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무릎꿇는 제국

미국은 랭전이 종식된 이후 조선에서 《핵소동》을 일으키다가 또다시 무릎을 꿇는 처지에 빠지게 되였다.

사실 랭전종식후 힘의 균형이 파괴되고 게다가 만전쟁에서까지 이라크의 항복을 손쉽게 받아낸 미제의 허영은 하늘끝에 닿았다.

이제 남은 단 하나의 반미자주화의 보루만을 무너뜨린다면 정말로 이 세계는 자기의 발굽아래 놓이게 될상싶었으니 그것이 바로 동방의 사회주의조선이였다.

1990년대초에 들어서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제원자력기구사이에 핵담보협정이 체결되는 등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적통일을 이룩하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활발해짐에 따라 미제는 남조선에 방대한 저들의 핵무기와 침략무력을 주둔시킬 명분을 점차 잃게 되였다.

이것은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제의

야망실현에서 커다란 파렬구가 생기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동시에 침략과 전쟁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수 없는 미국의 거대군수독점재벌들에게도 심대한 타격으로 되였다.

더우기 미제는 쏘련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격변하는 세계정치의 대파동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한길로 억세게 나아가고있는 사회주의조선이야말로 제놈들의 세계제패야망을 여지없이 박살낼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라는데로부터 조선을 압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였다.

바로 이로부터 미제는 공화국에 대한 《핵문제》라는것을 고안해냈다. 미제는 공화국에 대한 《핵문제》를 고안해냄으로써 조선의 내정에 간섭할수 있는 합법적명분을 마련하고 세계지배전략을 계속 추진시키며 동시에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저들의 군수산업들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타산하였던것이다.

미제는 국제법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공화국의 평화적핵활동을 걸고들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부 계층을 사촉하여 공화국이 제출한 핵물질재고량초기보고서내용과 저들이 측정한 결과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생억지를 썼으며 2개의 일반군사대상물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해

나섰다.

미제는 어리석게도 특별사찰에 응하지 않으면 《그레네이더나 빠나마, 이라크의 전철을 밟게 될것》이라느니, 그 무슨 제재를 가하겠다느니 하며 위협하는 한편 침략전쟁개시를 위한 전쟁행동기계를 가동시켰다.

미제는 공화국을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으며 해마다 벌려놓군 하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겠다고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줴던지고 1993년 1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재개를 공포하였으며 여기에 20여만의 침략무력과 방대한 핵타격수단들을 동원하고 지어 핵무기사용시의 지휘체계까지 발동하면서 군사적위협을 가해나섰다.

그리고 핵사찰문제를 가지고 조선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고 갖은 책동을 다했다. 미제의 책동에 제국주의련합세력과 일부 국제기구들까지 추종해나섰다.

이것은 명백히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로골적인 선전포고였다. 조선반도에는 또다시 엄중한 국면이 조성되였다.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고 조선반도를 영원히 저들의 군사전략적거점으로 만들려는 미제의 정체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조선인민이 자주권을 지키느냐 아니면 또다시 제국주의의 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심각한 운명의 갈림길에 들어선 그때 공화국은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자위적조치를 취하였다.

1993년 3월 8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34호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가 하달되였다.

불은 불로써 다스리는 멸적의 의지가 맥박치는 이 명령은 적들에게 내려진 무자비한 철추였다.

이어 적들의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이 실동단계에 들어가는데 대처한 조선인민군의 강력한 대규모타격집단들의 기동훈련이 맞받아 진행되였다.

1993년 3월 12일 공화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하는 정부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미제가 세계제패전략실현에서 기둥으로 삼고있던 핵몽둥이를 두동강내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였다.

조선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결단은 세계를 뒤흔들게 하였다.

하늘이 무너진것과 같은 놀라움과 의혹, 경탄이 온 세계를 휩쓸었다.

1993년 6월 2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의 뉴욕에서

진행된 제1단계조미회담에서 가소롭게도 부당한 요구조건을 내대면서 조약복귀에 응하지 않으면 《북조선은 비극적인 사태》에 처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될것이라고 위협하는 미제에게 조선측 단장은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할 때 미국의 미싸일이 날아올것도 각오했다.》는 대답을 주저없이 주었다. 이것은 결국 조선이 전쟁까지도 각오하였음을 선언한것이였다.

제2단계회담때에는 그 무슨 국제적압력과 제재를 운운해나서는 미제에게 공화국은 《대화에는 대화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는 1993년 11월 3일부 인민무력부 부부장담화로 자기의 강경하고도 원칙적인 립장을 밝히였다.

이러한 립장은 조미회담 제3단계에서도 변함없이 고수되였다.

공화국은 미제가 여러차례 회담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오그랑수를 쓰고 군사적압살망상을 끝끝내 버리지 않고있는 조건에서 조선의 선언은 결코 빈말이 아니며 조선은 한다면 한다는 철의 의지를 실지로 보여주기 위하여 막강한 군사적위력을 시위하는 미싸일발사시험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였다. 이것은 초고성능미싸일은 결코 미국만의 독점물이 아니며 조선을 건드리는자는 지구상 그 어디에 있건 단호히 징벌할것이라는

공화국의 의지와 결심을 그대로 보여준것이였다.

조선반도의 정세가 바야흐로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던 1994년 12월 17일 미제의 정찰직승기 한대가 오만무례하게도 조선측 지역인 고성군 해삼대 남강상류의 골짜기를 따라 금강군 이포리계선까지 종심 7㎞이상이나 깊숙이 침공해들어왔다.

이 정찰직승기는 미제침략군 8군소속 항공대 감시정찰직승기(《OH－58A/C》)로서 동체가 모두 특수방탄장치로 되여있고 만전쟁시기에 감시안내정찰임무를 수행하면서 단 한대도 격추되지 않아 《하늘의 고양이》로 불리우는 최신식비행기였다.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감시근무를 경각성있게 수행하고있던 조선인민군 군인들은 령공을 불법침입한 날강도에게 단호한 멸적의 불벼락을 안기였다. 적직승기는 단방에 화염에 휩싸여 곤두박혔으며 비행사 한놈은 즉사하고 살아남은 다른 한놈은 포로되였다.

미제침략군 직승기를 단방에 쏴떨군것은 그 어떤 원쑤가 공화국의 령토와 령공, 령해를 감히 침범한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조선의 선언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실지행동으로 보여준것이였으며 조미회담의 막뒤에서 공화국

을 반대하는 새 전쟁도발책동을 벌리고있던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단호한 징벌이였다.

미처 정신도 차릴사이없이 련속적으로 가해지는 강력한 타격에 얼이 나간 미제는 끝끝내 협상마당에 끌려나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공화국에 대한 전쟁각본까지 짜놓고 《제2의 조선전쟁》을 일으킬것처럼 떠들던 미제는 전 대통령 카터를 평양에 보내여 클린톤행정부의 회담재개요청을 전달하도록 하였으며 1994년 10월 20일에는 당시 미국대통령 클린톤이 직접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라는 최대의 존칭으로 경수로제공과 대용에네르기보장을 담보하는 서한을 드리였다.

그 다음날인 10월 21일에는 미국이 2003년까지 총 200만kW발전능력의 경수로발전소(약 40억US$) 제공과 매해 50만t의 중유납입, 무역 및 투자장벽의 완화와 련락사무소설치, 국가관계수립 등을 약속하는 조미기본합의문이 발표되였다.

이것은 41년전 판문점에서 조선전쟁항복서에 도장을 찍은 미제가 또다시 저들의 패배를 인정한것이나 같은것이였다.

조미핵대결과정을 지켜보던 세계는 조선의 빛나는 승리와 미제의 처참한 패배에 대하여 대서특필하였다.

미국신문 《뉴욕타임스》는 《클린톤의 양보》라는 제목의 론평에서《미국이 무력을 동원하여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위협을 가하여 아이띠군부가 정권을 내놓게 만들었고 이라크에는 군사적압력을 가하여 싸담 후쎄인이 쿠웨이트에서 무력을 철수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지만 북조선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위협을 가하자 클린톤은 손을 들고 항복하였다.》라고 썼으며 영국신문 《에이션 타임스》는 《근 반세기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고립, 질식, 파괴해보려고 집요하게 시도하던 미국은 마침내 자기의 목적이 실패하였다는것을 인정하였다.》고 평하였다.

력사상 가장 첨예하고 치렬하였던 조선과 미국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인 조미핵대결전은 이렇게 미제가 또다시 무릎을 꿇는것으로써 막을 내리게 되였다.

조미핵대결은 지난 20세기 50년대의 조선전쟁과 그후 반세기동안에 걸치는 조선과 미국사이의 첨예한 군사적대결의 연장선에서 발생된 문제이며 한하늘밑에서는 공존할수 없는 사회주의의 강경보루와 세계제국주의 우두머리사이에 벌어진 정치군사적대결의 최고절정이였다.

세계는 치렬한 조미핵대결을 지켜보면서 탁월한 선군령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불패의

군력을 다진 나라와 인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며 어리석게도 그에 도전하여나서는 미제의 말로가 어떠한가를 다시금 똑똑히 알게 되였다.

천벌의 9. 11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한 전례없는 습격사건이 일어나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였다.

그 강대성을 목갈리게 자랑하던 제국이 천벌을 받고 허약성과 나약성을 더욱 드러내고 말았다.

이날 미국의 《아메리칸 애어라인즈》항공회사와 《유나이티드 애어라인즈》항공회사소속 려객기들인 《보잉757》과 《보잉 767》 4대가 뉴욕과 워싱톤에 있는 미국의 주요대상들을 거의 동시에 습격하였다.

이 공격으로 강대한 미국의 경제위력의 상징이라고 하는 세계무역쎈터의 110층짜리 쌍둥이건물이 요란한 폭음과 함께 완전히 무너지고 그로부터 7시간후에는 쎈터의 다른 47층짜리 부속건물도 화염에 휩싸여 무너져내렸다. 외신들은 《자유의 녀신》상이 바라보이는 월가의 세계무역쎈터자리는 완전히 페허로 되였으며 《뉴욕은 공중폭격을 받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도시들과 흡사하였다.》고 전하였다.

세계무역쎈터 쌍둥이건물들에는 미국뿐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의 무역관계자들을 비롯한 5만여명이 항상 근무하고 하루 평균 15만여명이 출입하고있었다고 한다.

13일 뉴욕시장은 이 사건으로 6 000여명의 사망자가 난것으로 예견되고있으며 시내에서 현재 4 700여명이 행방불명되였다고 발표하였다. 뉴욕경찰대변인은 세계무역쎈터의 전체 구역이 완전히 파괴되였다고 말하였다.

앉은 자리에서 불벼락을 맞은 미국대통령 부쉬는 혼비백산하여 뉴욕을 피해지역으로 선포하였다.

한편 수도인 워싱톤에서는 비행기가 미국군사력의 중추인 미국방성청사의 서쪽면을 들이쳐 5층전체를 무너뜨렸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에 의하면 미국방성을 공격한 비행기는 백악관을 목표로 삼고 날아가다가 마지막순간에 27° 급선회하여 국방성건물의 서쪽면을 들이쳤다고 한다. 이 바람에 건물에서는 화재가 일어났으며 불길은 12일에도 건물을 휩싸며 계속 세차게 타올랐다.

미국방성은 이번 습격사건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13일 오전 현재 약 190명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습격사건으로 하여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중요기관건물들에서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시카고 등 전국의 대형건물들에 대한 출입이 금지되고 뉴욕금융시장이 문을 닫았으며 미국력사상 처음으로 모든 비행장들이 페쇄되였다.

워싱톤시장은 시에 비상사태령을 내렸다.

미국대통령 부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은 국가재난을 맞이하고있다.》고 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고 행정부의 모든 사업을 비상체제로 개편하였다.

미군부는 세계 각지에 나가 그 무슨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처럼 도사리고있던 항공모함 《스테니스》호, 《죤 에프. 케네디》호, 《죠지 워싱톤》호를 비롯한 20여척의 함선들을 불러들여 뉴욕과 워싱톤을 포함한 동부해안 지역에 급파하여 그곳에서의 순찰활동을 강화하였다. 예비역병사 1만여명이 긴급모집되고 《F－16》전투기 등 군용기들이 뉴욕과 워싱톤상공에서 경계비행에 들어가 민간비행기들의 운행은 차단되였다. 일본과 유럽 등 해외주둔 미군기지들에서 최대의 경계태세가 선포되였다.

9.11사건으로 110층짜리 쌍둥이건물의 세계무역쎈터가 완전히 페허로 되고 미국군사력의

상징이라고 떠들던 미국방성건물의 일부가 무너진것으로 하여 상상밖의 엄청난 인명피해를 본 미국인들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은듯 혼비백산하여 아우성쳤다.

그런데다가 뜻밖에도 연방 벌어지는 탄저균공격으로 하여 악몽과도 같은 공포증이 미국전국을 휩쓸었다.

항공회사들이 련이어 파산되고 경제에서 침체기가 지속되며 딸라와 주권시세가 날마다 폭락하는 미국을 두고 세상사람들은 흰머리독수리의 날개가 꺾이고 멸종될 날이 왔다고 평하였다.

미국무성은 12일 50여개의 해외대표부들에 대한 페쇄조치를 발표하였다.

미국에 대한 특대형습격사건은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워싱톤 포스트》 등 미국신문들은 미싸일방위계획강행과 같은 오만한 외교정책이 미국의 국제적고립을 스스로 초래했다고 하면서 미국의 리익만을 우선시하는 부쉬의 일방적인 외교정책에 사건의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이번 공격으로 하여 미국의 안전이 중대한 타격을 받았으며 끔찍하게 죽은 피해자들의 시체가 발견되기 시작하면 그 여파가 더욱 확대되고 부쉬의 지도력이 시험받

게 될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프랑스의 TV방송은 《세계가 강력한 세력으로 보고있던 미국이 나약》하다는것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이번 사건으로 《세계가 완전히 변하였다.》고 평하였다.

일본의 NHK TV방송은 이번 사건은 세계의 정치와 경제가 미국에 극단적으로 집중되여있는 《1극체제》에 대한 상징적인 공격이라고 하면서 부쉬행정부의 미싸일방위계획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고 보도하였다.

부쉬행정부는 비행기습격사건을 미국에 대한 전쟁행위로 선포하고 그에 단호한 보복을 가하겠다고 떠들어댔다.

미국대통령 부쉬는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이와 같은 전쟁행위에 대처하여 《전쟁에 들어갈것》이라고 하였으며 미국방장관 럼스펠드는 《미군은 사전경고없이 군사적징벌을 가할것》이라고 떠들어댔다.

전례없는 대기습공격을 받은 미국통치배들은 당황망조하여 군사적보복을 떠벌이며 이번건의 혐의자로 간주되는 사우디 아라비아출신의 오사마 빈 라덴과 그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있는 그 어떤 나라도 타격을 받을것이라고 선포하였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것으로 알려진

라덴을 지난 시기 자기 나라에 대한 여러 공격사건의 배후조종자로 지목하고 몇년전부터 그를 체포하기 위해 추적해왔다고 한다.

미국의 대규모적인 공격작전과 관련하여 14일 아프가니스탄의 탈리반지도자 오마르는 전국에 보내는 방송연설에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미국의 보복공격에 맞서 용기와 명예를 과시할것을 호소하면서 《탈리반은 죽어도 존엄있게, 영예롭게 죽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탈리반세력정치지도부 대변인은 탈리반은 미국의 있을수 있는 공격에 방어만 할것이 아니라 보복을 가할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그 어떤 대가도 치를것이며 모든 수단을 사용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

미국대통령 부쉬는 국회 량원합동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이 행동을 취해야 할 시간이 박두한 조건에서 군대에 림전태세를 갖출것을 호소하였다고 하면서 이번의 보복작전은 단 한번의 전쟁, 전투로 끝나지 않는 장기적인 작전으로, 미국이 과거 체험해본적이 없는 미증유의 작전으로 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라덴과 그의 조직을 지원하는 그 어느 정부도 미국의 적으로 될것이라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 신문, 통신, 방송들은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이 《군사행동에 앞서 반박할수 없는 증거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면서 미국의 군사적보복에 대한 협력문제에서 발을 빼고있다고 보도하였다.

독립후 외부로부터 포탄 한발도 날아오지 않은 나라라고 으시대면서 허황한 전역미싸일방위체계요 뭐요 하며 떠들어대다가 대낮에 하느님의 무자비한 징벌을 받은 미제국주의자들은 미국이야말로 실제상 얼마나 허약하고 허술한 나라인가를 온 세상에 드러내보이였다.

9.11사건은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세계의 곳곳에서 전쟁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 미제에 대한 너무나도 응당한 천벌로서 미국의 몰락상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였다.

아프가니스탄의 벼랑끝에서

미제가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이라는 진창속에 빠져 속절없이 허우적거리고있다.

9.11사건이 있은 후 라덴의 《알 카에다》의 소멸과 그를 뒤받침해주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리반정권전복을 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일으킨 미제는 탈리반정권을 전복하고 친미정권을

수립하여놓았다.

그러나 미제가 소탕하겠다던 탈리반세력은 없어지기는커녕 더욱 세력을 확대하면서 반미항전을 맹렬히 벌리고있어 아프가니스탄전쟁은 오늘까지도 끝을 보지 못하고있다.

탈리반무장세력은 아프가니스탄령토의 많은 부분을 저들의 완전한 영향하에 두고있으며 매일과 같이 미군을 비롯한 침략자들을 내쫓기 위한 무장항전을 벌려 침략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그 어디서나 항쟁세력의 총알이 날아오고 폭탄이 터지는 무시무시한 이 산악의 나라에서 미군을 비롯한 나토군병사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다. 지어 이 나라주둔 이딸리아군대에서는 탈리반세력을 매수하여 자기들의 안전을 담보받는 추문까지 발생하여 세계사회에 또 하나의 웃음거리를 남기였다.

한편 미국내에서는 10년나마 지속되는 전쟁으로 하여 염전사상이 만연되고있다.

전쟁을 당장 중지하라는 반전세력의 요구가 더욱 높아가는데다가 침략군대의 초모가 더욱 어려워져 국방성이 골머리를 앓고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미군부의 호전광들은 필먼의 《영웅적위훈담》과 같은 서푼짜리 자작극까지 연출하여

세상사람들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냈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그이상 별다른 뾰족한 수가 도무지 없었다.

사실 미국이 떠드는 필먼의 《영웅적위훈담》은 참으로 감동적이여서 만사람이 눈물까지 흘리는 정도였다.

2004년 필먼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었을 때 미국방성은 그가 막대한 액수의 축구선수계약금도 물리치고 군대에 자진입대하여 아프가니스탄주둔 륙전대의 한 소부대를 지휘하며 이슬람교도전투원들과의 전투에서 영용하게 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댔다.

필먼은 곧 미국의 민족적인 상징으로 부각되였으며 서방의 대중보도수단들은 일제히 그의 최후에 대하여 대서특필하였다.

미국방성 당국자들은 전쟁터에 내몰 신병들을 모집할 때마다 필먼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 그의 《영웅적위훈담》을 주문처럼 외워댔다.

다시말해서 필먼의 희생성과 영웅성을 따라배우라는것이였다.

그러나 자루속의 송곳은 삐여져나오기마련이다.

당국자들이 노는 역스러운 꼴을 계속 참고 보고만 있을수가 없어 필먼의 부모들은 영국신문 《데일리 텔레그라프》와의 회견에서 자기 아들

이 이슬람교도전투원들과의 전투에서 죽은것이 아니라 다름아닌 제편병사들의 손에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그가 바위뒤에 숨어있었다고 하여 동료병사들이 총으로 쏘아죽였다고 사실을 공개하였다.

이렇게 되여 필먼의 《영웅적위훈담》은 한갖 미국방성의 자작극이라는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였다.

사실은 더더욱 드러나 필먼이 죽었을 당시 그의 군복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일체 침묵을 지키라는 지시가 동료병사들에게 떨어졌으며 이 사실을 필먼의 부모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압력이 가해졌다는 사실도 드러나게 되였다.

병력초모가 어려워지고있는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미국에는 수십년래의 금융위기가 도래하여 인적자원은 물론 충당할 자금마저 고갈되여가고 있다.

로씨야신문 《쁘라우다》는 《알 카에다의 숨통을 끊는데 얼마만한 대가가 드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전에 어느 한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을 평정하려 할 때 그것은 자국의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제는 미국이 그러한 운명에 직면하였다고 하면서 《오늘날 〈알 카에다〉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맥을 뽑기 위한 전쟁을

성과적으로 치르고있다. 〈알 카에다〉가 일종의 흡혈귀처럼 전쟁에서 미국의 돈즙을 빨아내고있다.》고 하였다.

미제는 《알 카에다》와 탈리반의 소모전에 말려들어 아프가니스탄전쟁이라는 밑빠진 독에 막대한 군사물자와 자금을 탕진하고있는데 그로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미국경제는 파산의 구렁텅이로 더욱 줄달음치고 세계최대의 채무국신세에서 허덕이는 미국의 파멸이 더욱 가까와오고있다.

동맹국들의 태도까지도 랭담해져 미국의 속을 태웠다.

미제는 2001년 아프가니스탄침략전쟁을 시작하면서 《반테로》라는 구호를 내놓음으로써 나토를 끌어들이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사망자가 늘어나는데다가 나토무장력이라고는 하지만 미군사령관의 지휘밑에 있어 독자성을 발휘할수 없다는데로부터 많은 나라들이 참가의욕을 잃었다.

프랑스를 비롯하여 많은 나토성원국들이 단 한명의 병사도 아프가니스탄에 더 파견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립장을 밝히였다.

《반테로전》의 간판밑에 감행되고있는 미제의 살륙만행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세계무대에서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있는것도 골치거리가 아닐 수 없다.

미제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진펄의 함정속에 동맹국들뿐아니라 다른 대국들도 끌어들여 저들이 직면한 위험을 그들에게 전가시키고 아프가니스탄문제와 관련한 책임도 함께 걸머지게 하려는 의도밑에 외교공세도 펼쳤으나 그것도 도무지 은을 내지 못하였다.

력사적으로 볼 때 제국주의자들의 아프가니스탄침략은 성공한 례가 없었다.

일찌기 영제국주의자들은 1838년부터 1842년까지의 제1차, 1878년부터 1880년까지의 제2차, 1919년의 제3차로 아프가니스탄을 타고앉기 위한 전쟁을 일으켰지만 실패만을 거듭하다가 종당에 밀려나고말았다.

미제는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저들의 압도적인 수적, 기술적우세를 믿고 침략적인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도발하였으나 아프가니스탄의 특수한 정치체제와 지형 및 인구구성상태를 잘 타산하지 못한 덕을 톡톡히 보았다.

아프가니스탄령토는 사막과 험준한 산맥들로 이루어져있으며 특히 파키스탄과 접하고있는 동북부는 해발 5 000~7 000m의 높은 산들이 솟아있는 산악지대이다.

수도 카불의 해발고만 하여도 1 500m에 달한다. 령토의 80%를 차지하는 이러한 산간지역에는 또한 자연동굴들이 많으므로 공격하기가 매우 어렵다.

미제는 전략물자들을 중앙아시아나라들의 경내에 있는 일부 비행장들을 중계지로 리용한 다음 다시 륙로를 통하여 아프가니스탄경내에로 운반하였다.

하지만 북부중앙아시아나라들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는 중요통로는 반드시 전략적요충지인 판지에쉬르골짜기를 경유하여야 하는데 이전에 이 나라에 진출한 어느 한 나라는 이 전략적수송생명선을 장악하기 위하여 대병력을 동원하였으나 막대한 손실만 당하였다.

국제사회계는 이 나라의 아프가니스탄전략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후방물자와 통신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데 있다고 하였다.

미제가 처한 처지가 바로 그러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체제는 원래부터 국가가 통일적으로 전국을 다스리지 못하고 매 지역들에서 개별적인 부족들이 거의나 독립적으로 통치하는것을 형식상 련합하는 식으로 되여왔다.

매 골짜기마다 서로 다른 종족, 부족들이 살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종족 및 부족수가 너무 많아

어느 한 종족이나 부족만을 내세워 통치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인구구성상태로 하여 아프가니스탄은 지금까지 하나의 국가로 존재해오기는 하지만 그 어느 시기의 그 어떤 정권이든 나라의 전지역에 대한 전일적인 통치를 실현해본적이 없었다.

미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러한 아프가니스탄을 타고앉으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오바마를 비롯한 미제호전광들은 이라크전쟁은 일으키지 않아도 될 《잘못 선택한 전쟁》이지만 아프가니스탄전쟁은 미국에 있어서 《반드시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전쟁》이라고 들고나오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아프가니스탄을 차지하기 위하여 필사적인 몸부림을 쳤으나 그것은 실현불가능한것으로 되였다.

미제가 제아무리 그 무슨《새로운 아프가니스탄전략》이요 뭐요 하면서 발광하고있으나 그것은 저들의 멸망의 날만 더욱 앞당길뿐이다.

력사의 고발

고도기술무기의 실체

미제는 저들의 고도기술무기에 대한 선전을 곧잘 벌려놓군 한다.

원래 고도기술무기개발에 대한 정보는 어느 나라이건 국가의 최고비밀로 되고있다. 하지만 미제가 쩍하면 저들의 고도기술무기에 대하여 공개하는 놀음을 벌려놓군 하는것은 교전상대측 군대와 인민을 공포속에 몰아넣고 저들의 군사적위력을 선전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있은 여러 전쟁들에서 미제의 고도기술무기들이 허다한 약점들을 드러낸 사실은 미제의 고도기술무기선전의 허황성을 증명해주고있는것이다.

미국이 그토록 요란스럽게 광고하던 요격미싸일 《패트리오트》는 페르샤만전쟁때 벌써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다.

미제는 이 미싸일을 30억US$를 들여 17년동안이나 개발하였다느니, 이라크의 《스쿠드》미싸일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70%나 요격하였고 이스라엘에서는 40% 요격하였다느니 하면서 요란스럽게 선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였다.

이스라엘의 한 물리학교수는 만전쟁에서 《패트리오트》가 《스쿠드》를 격추한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스쿠드》에 의하여 미군은 피해만 입었다고 말하였다.

이전 미국방장관 코헨도 《패트리오트》의 전과에 대하여 헛소문을 퍼뜨려 명성을 얻은것은 사실이였다고 실토하였다.

미제가 최신형이라고 자랑하는 《F－117A》스텔스전투기도 유고슬라비아공습때 그 나라 군대의 재래식고사포에 맞아 격추되였다.

미제가 《그 어떤 반항공탐지기에도 포착되지 않는다》고 자랑하는 《B—2A》스텔스전략폭격기는 영국의 한 비전문가반항공미싸일조종수가 시험출연때 6㎞밖에서부터 추적하여 격추한적이 있었다.

먼거리에서 초저공으로 지상목표를 공격하는 미국의 《토마호크》순항미싸일도 페르샤만전쟁과 이라크전쟁에서 그 약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미싸일은 지형을 대조판별하는 프로그람방식으로 유도되는데 전쟁행정에서 지형이 조금만 달라져도 목표를 분간하지 못하여 그 명중성이 대폭 떨어졌다.

더우기 이 미싸일은 비행고도가 낮고 속도가

떠서 지상화력무기에 의하여 격추되기가 일쑤였으며 강한 전자장애를 받거나 모래광풍, 구름, 안개, 눈비에 부닥치면 목표를 명중하지 못하군 하였다.

지난 페르샤만전쟁때 미국의 《토마호크》순항미싸일은 100여기나 격추되였으며 이라크전쟁때에도 이 미싸일 수십기가 이라크군고사포에 맞아 격추되였다. 유고슬라비아공습때 《토마호크》순항미싸일의 명중률은 30%도 못되였다.

미국의 고도기술무기들은 기술적부족점과 오동작으로 왕청같은 목표들을 타격하군 하였다.

실례로 이라크전쟁초기 미제는 고도기술미싸일로 이라크를 타격한다는 노릇이 뛰르끼예의 중부를 타격하여 강한 불만을 야기시켰는가 하면 미군주도하의 다국적군지휘부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강타를 들이대여 사람들을 아연케 하였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패트리오트》는 이라크—쿠웨이트국경부근에서 동맹국인 영국공군전투기를 타격하여 박산내고 영국군비행사 2명을 죽였다. 미국의 고도기술무기의 오동작들에 의한 이러한 사고들은 그후에도 계속 일어났다.

미제가 떠들어대는 고도기술무기의 실체는 바로 이렇다.

미국의 진면모 4

강대성의 신화는 깨여졌다

편집: 김준혁

낸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발행: 주체105(2016)년 5월

ㄱ-683555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
http://www.naenara.com.kp

ISBN 978-9946-0-1446-3
9 789946 014463

조선 · 평양
주체105(2016)년